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분석

이은희[†]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

Analysis of Educational Content Related to 'Clothing Life Industry' in Middle and High Schools According to Curriculum Revision

Lee, Eun Hee[†]

Dept. Home Economics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Iksan, Korea.

Abstract: At a time when the direction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is being discussed in line with the change in the future education paradigm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ost-COVID-19 era, this study attempted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education by exploring the clothing life contents with content analysis method and analyzing the 'clothing life industry' related educational content of the curriculum revision period.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urriculum,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industry' were not systematic.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clothing life industry' and the digital fashion industry are presented as content related to the 'clothing life industry', so it is expected that the textbooks implemented in the educational field in the future will mention specific content about this. In addition, research on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clothing life is also needed because the 'clothing life industry' can be an important cause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Above all, it is expected that follow-up studies will be conducted to enhance the value of clothing life education in the future in the reality that the aware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clothing life education is low.

Key words: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clothing life education contents (의생활교육내용), clothing life industry related education contents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1. 서 론

의생활교육은 제1차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가정과교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해왔다. 중·고등학교에서 의생활교육은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라 제1차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까지는 주로 '의생활'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가정과 기술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활기술'영역에, 2007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식·주·가족·소비생활이 통합된 '가정생활'영역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 포함되었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은 주로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영역에 제시되고 있다.

Chung(2004)은 의생활을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비롯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제작·사용하며 관리하는 인간 삶의 활동”으로, Choi et al.(2012)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섬유나 천으로 만들어진 의복을 포함한 모든 생활용품들을 제작하고 또는 구매, 사용 및 관리하는 모든 삶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의생활 정의로는 “우리가 매일 어떤 옷을 어떻게 입고 생활하는 것이 주위 환경과 잘 조화되고, 자신을 잘 표현하며, 아울러 보다 쾌적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을 말한다”라고 하였다(Ryu et al, 1984). Lee(2013)는 의생활교육을 가정과교육의 일환으로서, “의생활에 필요한 지식, 이해, 지능, 태도를 지니게 하고 의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과서 내용 분석 등을 제시하였다(Jin, 2013).

이제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옷'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제1차에서 3차 교육과정까지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1인 1기의 직업교육적 내용이 강조되어 수예, 편물, 재봉 등의 실기 내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중등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은 '바느질하기'로 주로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Ju et al., 2006; Kim et

[†]Corresponding author: Lee Eun Hee

Tel. +82-63-850-6589

E-mail: ehlee@wku.ac.kr

©2024 The Korean Fashion and Textile Research Journal(KFTRJ). This is an open access journal. Articles ar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al., 2003; Lee & Jean, 1994; Pak & Lee, 2003). 또한, 의생활교육 선행연구는 주로 초등 실과교육에서 제시되었다(Cho, 2016; Chung, 2012; Chung, 2016; Jang & Lee, 2009; Ryu, 2014; Yang, 2016). 이와 관련하여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생 의생활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Jin(2013)의 연구에서도 의류학의 하위영역별 논문 편수를 고찰한 결과, 의복구성학 분야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의생활교육이라고 하였다.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의생활교육내용에서는 의복의 선택과 자기표현과 관련된 내용이 증가한 반면에, 의복 및 생활용품제작 관련 내용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것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의생활 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9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은 옷차림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의복 재활용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1; Moon & Lee, 2009).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의생활문화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학교 기술·가정과목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영역에서 지식·이해 범주에 스마트의류와 메타패션을 제시하면서, 의생활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 의류의 유형들을 탐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디지털 패션 산업으로 메타 패션을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생활산업’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로 인해 교육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통적 교실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미래 교육 체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MOE], 2021; Ree & Koh, 2017; Lee, 2019; Lee, 2022).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점에서 교육과정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전달, 산업기반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통합을 강조하는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MOE, 2022; Seong, 2017).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은 메타버스, 언택트,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패션 산업시장에서도 기술적 혁신을 가져왔다. 또한, 지구 기후 환경변화의 위기감으로 인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트렌드의 급부상과 함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 제품 생산에서부터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Lee & Kim, 2022; Kim, 2023; Park & Shin, 2022; Wan & Chung, 2023). 따라서 이러한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의생활교육내용 또한 빠르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도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의생활교육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시점에서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로 대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시작점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등의 수량적인 조사를 수행하기보다는, 1955년 제1차 실업·가정과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별로 제시된 교육내용을 분석하는 데 학교급별로 체계적으로 추론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의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틀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해보는 교육적 논의 과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제시된 교육과정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는 데 효율적인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을 활용하였다. 내용분석법은 기록물의 내용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문헌연구로서, 내용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의되고 있다(Berelson, 1952; Cha, 2012; Holsti, 1969; Kolbe & Burnett, 1991; Krippendorff, 2018).

우리나라는 국가가 학교현장에서 수행되는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제정·공포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각 교육과정 개정 당시의 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어려우므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원문을 그대로 분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과정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법이 활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내용분석법은 내용분석에 대한 계열성 즉, 체계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Harris, 2001). 여기서 체계성을 지닌다는 것은 교육내용의 분석 과정에서 더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분석은 동일한 분석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객관적 분석을 전제로 하며, 분석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편견의 개입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Table 1과 같이, 1955년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2022년 12월 22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을 앞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총 11차례의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며, 각론에서는 일반적

Table 1. Subject to analysis of clothing life contents from the 1st curriculum to the 2022 revised curriculum

Division	Subject
1st	Ministry of Education(1955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55b). High School and Teachers'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Subject
2nd	Ministry of Education(1963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 Home Economics Course Ministry of Education(1963b). High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Subject General Management, Home Economics General
3rd	Ministry of Education(1973).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74). Humanities High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4st	Ministry of Education(1981a). Middle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81b).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5st	Ministry of Education(1987). Middle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Ministry of Education(1988).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usework Subject
6st	Ministry of Education(1992a). Middle School Curriculum. Home Economics Education Ministry of Education(1992b). High School Curriculum.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Home Economics Education, Home Economics Education
7st	Ministry of Education(1997).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2007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a). Middle School Curriculum 6, Technology·Home Economics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2007b). High School Curriculum(I) 6-1, Technology·Home Economics
2009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1).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2015	Ministry of Education(2015).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2022	Ministry of Education(2022).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으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순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1955년 제1차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이 주로 제시된 중·고등학교 가정, 가사, 기술·가정, 가정과학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의생활 교육내용

교육과정은 교과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고 미래 교육과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본다. 1955년 제1차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서부터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의생활교육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초등교육에서는 실과, 중등교육에서는 실업·가정과, 가정, 가사교과에서 제시되었다. 가정과교육내용은 주로 의·식·주·가족·소비생활로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각각 ‘생활’로 제시되는 점이 특징이다. 교육과정 시기별 의생활 교육내용이 제시된 영역은 Table 2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이라는 용어는 제2차 교육과정부터 제시되었다. 의생활교육내용에 제시된 영역에 있어서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수기공작’, ‘피복생활’, ‘의생활’,

‘청소년의 의복’, ‘청소년기 의생활’영역 등으로 제시되다가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의생활’영역으로 따로 제시되지 않고 주로 ‘가정생활’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 등의 영역에서 제시되었다. 7차 교육과정 이후 의생활교육내용은 주로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 ‘의생활’, ‘패션과 의생활’ 등으로 제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MOE, 1955a; MOE, 1955b) 중학교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서는 성격에 “여학생을 주로 하는 학교에서는 재봉 기계 등을 이용해서 꾸미기, 부리기 등의 기능습득 계획을 짜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생활교육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을 한정 짓고 있다. 각 학년 배당표에서 가정생활 ‘수기공작’영역에서 방직 염색, 편물, 직물 정연법과 표백, 실뿔기와 재봉 세탁, 재봉 자수, 수리 습식, 재단법, 얼룩빼기, 의복 꾸미기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손으로 직접 무엇을 만들어내는 ‘공작’의 개념이 강조되었다. ‘재봉’영역의 교육내용은 한복뿐만 아니라 양복, 부인용 의복, 남녀 아동 의복, 작업복, 내의 등 다양하였다. 고등학교는 실업·가정과 가정 교과의 성격에서 “직업적인 일이라면 어디까지나 일 품적인 기술 숙련을 중시하고 있으나, 이 「가정」의 모든 일은 가족 중심으로 벌어지는 가사 중심이어야 한다”로 교육내용을 가사(家事) 중심으로 국한하고 있다. 고등학교 의생활지도내용은 ‘피복생활’영역에 의복의 원료, 세탁, 수예, 재봉, 양복과 한

Table 2. Domains of clothing life education content by curriculum revision period

Division	Middle school	High school
1st	Handcraft	Clothes
2nd	Clothing life	Clothing life
3rd	Clothing life	Clothing life
4st	Adolescence's clothing life	Clothing life
5st	Adolescence's clothing life	The human body and clothes, clothing design and construction, clothing management
6st	Clothing life	Clothing life
7st	Life skills	Understanding of family and work, clothing life
2007	Adolescence's life, family life	Family life, clothing and fashion
2009	Family life	Family life, fashion and clothing life
2015	Family life and safety	Family life and safety
2022	Human development and initiative living living environment and sustainable choices	Living culture and digital environment

복, 염색, 천짜기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제2차 교육과정(MOE, 1963a; MOE, 1963b) 시기부터 실업·가정과 교육과정에 ‘의생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중학교 실업·가정과 가정과정 ‘의생활’영역 지도내용은 1학년 옷감, 옷차림, 옷의 손질, 재봉의 기본적 지식 기능, 2학년 재봉틀 다루기, 옷 다루기와 만들기, 빨래와 정리, 옷 관리, 3학년 의생활 향상, 옷 만들기(한재, 양재), 의생활 관리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와 같이 가정일반 지도생활에 ‘의생활’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의생활에 대하여 “의복의 재료와 생산 상태, 그리고 의생활의 방향을 알려서 국가 경제와 가정 경제에 알맞은 합리적인 의생활 운영 관리 능력을 양성하게 한다”라는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 의복의 원료, 의복의 목적, 피복 관리, 직물과 의복, 의복만들기(한재, 양재, 수예), 앞으로의 의복생활, 몸차림(미용 포함) 등의 7가지 내용요소가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의생활교육내용에 미용이 제시된 것이 특징적이다. 중학교에 ‘의생활’과 ‘수예’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에 ‘수예’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시기의 지도상의 유의점에는 건설한 의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MOE, 1973; MOE, 1974) 중학교 실업·가정과 가정(여자) 학년별 내용으로 ‘의생활’영역이 제시되었으며, 1학년은 평상복의 손질과 수리, 옷차림, 앞치마 만들기, 2학년 스커트 만들기, 빨래, 옷의 수리와 재생, 3학년 옷감, 옷과 옷감 사들이기, 옷의 선택 즉, 옷의 용도, 종류와 선택법, 옷과 생활과의 관계, 블라우스 만들기, 수예 등이 제시되었다. 기존의 ‘수예’와 ‘의생활’영역으로 각각 구분하였던 것을 ‘의생활’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 시기부터 의생활교육은 가사과목에 많이 제시되었다. 학년별 내용에서는 ‘재봉’영역에 제시되었다. 2학년 ‘재봉’에서는 복장의 형태, 기초바느질, 부분 바느질, 블라우스 만들기가, ‘수공예’로는 편물, 자수, 염색 등이 제시되었고, 3학년에서는 ‘재봉’영역으로 원피스·치마·잠옷(파자마)·저고리 만들기가, ‘수공예’는 편물, 자수, 목각 등이 제시되었다. 고등

학교 가정과 가정 내용에서 ‘의생활’은 의복재료의 선택, 가족의 의생활, 의류제작, 의생활 경영의 능률화 등으로 제시되었다. 가사에서는 ‘편물’, ‘자수’, ‘한재’, ‘양재’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MOE, 1981a; MOE, 1982b) 중학교 실업·가정과 가정에서는 의생활 대신 ‘청소년의 의복’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복’영역에서는 1학년 옷감, 옷차림, 앞치마만들기, 2학년 의복 견사하기와 의복 마련하기가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생활교육에서 현명한 소비자로서의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가사에서는 ‘수예’와 ‘재봉’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재봉’영역에서는 한복차림, 블라우스만들기, 동정과 치마허리 달기가, ‘수예’영역은 자수와 수편물이 제시되었다. 가사에서는 기존 교육과정보다 내용이 축소되었다.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가정에서는 중학교와 달리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의생활’영역에서 의류재료, 의복의 구성과 착용, 의생활의 의미, 의복의 손질과 보관, 의생활의 자원과 활용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사에서는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로 제시되었다. 이 시기는 중학교와 같이, ‘재봉’영역은 습득되어야 할 기능을 증점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고, ‘수편물’영역도 실습에 배당시간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5차 교육과정(MOE, 1987; MOE, 1988) 중학교 실업·가정과 가정과목 내용에서는 ‘청소년기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의복의 기능과 종류를 알게 하여 바른 옷차림을 하게 하고, 섬유와 종류와 옷감의 특성을 이해시키며, 간단한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게 한다.”는 목표하에, 1학년에서는 옷차림, 옷감, 생활용품 만들기가 제시되었다. 2학년은 “의복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알게 하여 의복을 계획, 선택하고 만들 수 있게 하며, 세탁, 보관 등의 의복 관리 능력을 기른다.” 목표하에 의복 마련하기, 의복 견사하기가 제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생활’영역에 소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강조를 두었다.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가정과목에서는 ‘의복디자인과 구성’, ‘인체와 의복’, ‘의생활관리’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인체와 의복’영역은

인체 생리와 의복, 섬유 종류와 실과 옷감으로, '의복디자인과 구성'영역은 옷과 의복 만들기, '의생활관리'영역은 세탁 및 간수, 의복구매 내용이 제시되었다. 가사 과목은 '한국의복', '서양의복', '수편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MOE, 1992a; MOE, 1992b)에서는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서는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었다. 1학년 상황과 의복, 의복의 의미, 의복의 착용법, 소품 만들기, 2학년 기성복의 마름질, 의복계획, 치수의 표시, 바느질 평가, 섬유의 혼용률, 취급 등으로 제시되었다. 3학년은 교육내용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의생활 교육내용의 계열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Pak & Lee, 2002). 고등학교 실업·가정과 교육과정 '의생활'영역은 의생활관리 내용이 제시되었다. 의생활관리 내용으로는 의류의 세탁과 보관, 의복과 개인과의 관계, 의복 구성 기초, 옷감의 섬유·조직·가공과 의복의 성능, 간단한 의복의 제작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수편물', '한국의복', '서양의복'영역이 제시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MOE, 1997)에서는 기존의 가정과 기술이 기술·가정으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교육내용 체계가 기존의 의·식·주·가족·소비생활이 아닌 '생활기술',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중학교에서 의생활교육은 8학년에서만 '생활기술'영역에서 의복마련과 관리 내용이 제시되었다. 국민공통교육기간인 고등학교 1학년인 10학년에 '가족과 일의 이해'영역의 가정생활 설계에서 의생활문화내용이, '생활기술'영역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직물을 이용한 커튼, 식탁보 등의 생활용품 만들기 내용이 제시되었다.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에서는 '의생활'영역으로 의복의 선택과 착용, 의복의 재료와 관리, 편물과 자수, 의복디자인과 제작 내용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라고 알려져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MEHRD], 2007a; MEHRD, 2007b)에서는 기존의 '가족과 일의 이해', '생활기술', '생활자원과 환경의 관리'영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가정생활'과 '기술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중학교에서는 '의생활'영역이 아닌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8학년 '가족의 생활'에서 의복의 선택과 관리, '가정생활의 실제'에서 옷 만들기과 고쳐 입기 내용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10학년 '가정생활'영역에서 의생활문화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심화선택과목인 가정과학인 기존의 '의생활'영역이 아닌 '의복과 패션'영역으로 변경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영역이 의복의 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제작, 편물과 자수, 의복의 선택과 착용 내용으로 제시된 데 비해, 2007 개정에서는 의복재료와 관리, 패션의 이해와 디자인의 실제, 의복만들기와 코디네이션으로 구성되었다.

학년군별체계가 실시된 2009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MEST, 2011)에서 의생활교육은 중학교 기술·가정 '가정생활'영역에 청소년의 생활에서 옷차림과 자기표현,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에서 친환경적 의생활과 옷 고쳐입기 내용으로 제시되

었다. 청소년의 생활에서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옷차림과 의생활문화의 계승을 통한 올바른 의생활 실천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 가정생활의 실천에서는 "의생활 전반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능력과 자신의 의복 구매부터 관리까지의 친환경적인 의생활을 실천"을 강조하였다.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영역에 가족이 여는 행복한 가정생활문화 배려와 나눔의 의식주생활로 제시하면서 의생활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즉, 식·의·주·가족·소비생활 등이 생활에서 통합적으로 경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습내용 또한 가정생활로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선택교육과정에서 심화과목인 가정과학은 관련 전공 분야인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에 필요한 가정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생활은 '패션과 의생활'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사실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의생활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이 더 많은 학교현장에서 선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패션과 의생활'영역에는 패션과 첨단 기술,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가 제시되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역량기반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공통 교육과정 중학교에서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 옷차림과 의복 마련, '자원관리와 자립'영역에 의복 관리와 재활용 내용이 제시되었다. 핵심개념이 각각 '생활문화'와 '안전'으로 의생활 수행의 실천 역량을 갖추는 일을 통해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하도록 하고, 제한된 생활자원을 목적과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활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기술·가정에서는 '가정생활과 안전'영역에서 한복과 창의적인 의생활 내용만 제시되었다. 한복의 미적, 기능적인 특징과 다른 나라의 의생활문화를 이해하고 현대 의복에서의 활용 방안을 탐색하여 창의적인 의생활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전체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의생활교육내용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의생활영역을 분석한 Kang and Lee(2018)의 연구에서도 전체적으로 의생활영역 교과서 분량이 약 10% 정도로 작다고 하였으며, 옷차림, 의복 마련, 의복의 의미, 창의적 의생활, 구매 계획 등의 교육내용이 추가되어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2022년 12월 22일에 미래교육을 열어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발표되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3월 초등학교 1, 2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 3월까지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시행될 예정이다.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MOE, 2022)은 2025년 3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을, 2026년 초등학교 5, 6학년에 실과 교육과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실상 편제상으로는 의생활교육에서 특히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 배당이 축소되었다고 본다.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에서 의생활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영역의 일부와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영역으로 볼 수 있다. 내용 체계에서는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고, 내용 요소로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범주로 구분된 점이 특징적이다.

‘인간발달과 주도적 삶’영역 지식·이해 범주에서 중학교(1~3학년)는 자기 이미지와 표현이, ‘생활환경과 지속가능한 선택’영역 지식·이해 범주에서 중학교는 의복재료와 관리행동, 의복 마련계획과 업사이클링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과정·기능 범주에서는 의생활에 업사이클링 활용하기가, 가치·태도 범주에서는 의생활에서 건강을 추구하는 태도와 창의적인 의생활을 실천하는 태도가 제시되었다.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에서는 의생활과 청소년의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다룰 때 학생들이 의복의 브랜드나 가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하여 지도하게 되어있다. 또한, 생태전환교육 측면에서 패스트패션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생활 문제들을 분석하여 개인적 요구뿐만 아니라 선택한 사항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고 나아가 3R(Reduce, Reuse, Re(Up)cycle)을 실천하는 방안까지 탐색하도록 하였다. 의생활자원의 순환과정에도 초점을 맞추어 자신과 가족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을 실천적 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성찰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의생활이 디지털 생활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작용을 살펴보고 제안하고 있다. 고등학교 기술·가정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영역의 지식·이해 범주에서 의생활과 문화 다양성, 스마트의류와 메타패션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4.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2003)에서 제시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표』에서는 의생활교육에 해당하는 학문분류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즉, 인문사회과학 사회분야에서 대분류 생활에 의류에 해당하는 의류설계 및 구성, 의류관리, 의류환경, 패션문화사, 복식미학, 패션마케팅, 패션소비자행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과정상 의생활교육내용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던 제5차 교육과정 시기 의생활교육 영역으로는 의복재료, 의복차림, 의복관리(세탁, 염색, 보관), 의복구성(바느질 포함), 복식사, 의복경제(구매, 생산, 판매), 의생활 산업, 지수, 편물, 의생활 기기 등이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의 주요 학문 체계로 의복재료, 의복구성, 의복관리, 의복환경, 의생활 산업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의생활산업’을 교과서에서는 의복산업으로도 표현하였다. 의복산업을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3대 요소인 옷을 제조하는 산업으로서, 좁은 의미로는 천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산업을 말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복재료의 생산과 천, 가죽, 모피 등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의류를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을 의미한다”고 하

였고, 또한 “의복과 관련된 산업에는 실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산업과 방적업, 직조업, 섬유 가공업, 의복 제조업 등과 간의 의복 재료나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 그리고 의복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이 포함된다”라고 정의하였다(Ryu et al., 1984; Ryu et al., 1990).

제1차 교육과정에서(MOE, 1955a; MOE, 1955b) 중학교는 ‘의생활산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회적·경제적 지식 이해에서 의식주의 계획, 우리나라 산업과 연역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2차 교육과정(MOE, 1955a; MOE, 1955b)에서는 고등학교 의생활 지도상의 유의점에 “수예, 재봉실습을 통하여 물건을 분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알린다”가 제시되고 있다. 이 시기부터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주로 수공예 내용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제3차 교육과정(MOE, 1973; MOE, 1974)에서는 중학교 가사과목에 일반목표로 “재봉, 수공예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소질 향상에 힘쓰게 하며, 지역 사회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로 되어있어서 제2차 교육과정에서와같이 재봉과 수공예 산업이 연계된 내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개정 시기부터는 재봉, 수공예뿐만 아니라, 조리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목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산업 관련 내용은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에서만 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일반목표와 관련하여 학년 목표로는, 3학년 목표에 “수공예의 초보적 지식 기능을 넓혀, 작품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하며, 수출 산업 발전에 공헌할 수 있게 한다”로 제시되었다.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수공예의 내용 중 염색, 지수와 편물, 목각 등은 기초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나머지 시간에는 기타의 향토적 수공예를 다룰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수공예를 통한 ‘의생활산업’으로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같이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학교의 실정과 지역 사회의 요청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조화, 염색, 봉제, 완구, 목각 또는 그 밖의 향토적인 수공예 등을 배정 단위 중에서 2~3 단위 범위 내에 지도할 수 있다”로 되어있어서 의생활교육에서 향토적 수공예 산업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차 교육과정(MOE, 1981a; MOE, 1981b)에서는 중학교에 의생활영역이 아닌 가정과 기업 영역에서 산업의 종류와 직업이 제시되었다. 특히 이 시기 ‘재봉’과 ‘수예’영역에서도 수공예 산업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본 기능 습득’을 강조하였다.

5차 교육과정(MOE, 1987; MOE, 1988)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의복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과정을 알게 하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중학교 가사 과목 목표에서는 “식생활, 수예, 의생활 등과 관련 있는 산업 및 직업 세계를 이해시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와, 의생활에서는 “의복 제작과 의류산업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켜, 간단

한 의복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가 제시되고 있어서 '의생활산업'에 대한 내용을 목표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수공예에 국한하지 않고 의생활교육 전반에 걸쳐 산업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하였으며, '의생활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하에 내용으로는 '의생활'영역에서는 "의류산업의 현황을 이해시키고, 의복 구성의 원리를 알게 하여 옷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하에 블라우스만들기와 의류산업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의생활산업'에서는 의복 관련 산업에서 의복 제조업, 의복 재료 제조업, 의복 관련 서비스업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당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Ryu et al, 1990; Ministry of Education, 1991), "의복과 관련된 산업에는 실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섬유 가공업, 산업과 방직업, 직조업, 의복 제조업 등과 간의 의복 재료나 의복을 제조하는 산업, 그리고 의복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이 포함된다"로 되어있다. '수예'영역에서도 "자수와 편물의 기초 기능을 습득시켜, 간단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이와 관련된 수예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한다"라는 목표하에 자수, 편물, 수예 산업이 제시되었다. 교과서 내용에서 자수 산업은 손수 산업과 기계수산업으로 구별되며, 이를 다시 한국 자수 산업과 서양 자수 산업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당시 컴퓨터자수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자수제품과 수실을 생산하는 종업원 5인 이상의 업체수가 1987년 당시를 기준으로 약 1,000개소가 넘었고 조사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편물산업으로는 기존에는 주로 속옷 중심으로 발달했으나, 겉옷류에도 편물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편물산업은 유럽으로부터 편물 제품이 들어온 이래로 크게 발달하여 1988년 경우 편물산업이 전체 의류 제조 업체수의 13%, 종업원 수는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의생활교육에서 '의생활산업'을 비롯한 산업 관련 내용이 제시된 데에는 교과교육에서 산업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목표를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본다.

가사과목의 목표에서는 의생활뿐만 아니라 식생활 내용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내용으로는 가사과 관련 산업과 직업 영역에서 "편물, 의복 등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업 실태와 전망, 관련 직업 등을 이해시켜, 개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로 제시되었고, 편물과 의복 관련 산업과 직업 내용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기존의 수공예가 아닌 편물 관련 산업 내용이 제시되었다는 것이다. 지도내용 또한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과 관련지어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과 관련 산업과 직업'영역에서 의복 등과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산업 실태와 전망, 관련 직업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제5차 교육과정 중학교 가사과목에서 목표와 내용에 '의생활산업'의 많이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교 가사 과목 교과서에서는 의복산업의 의의와 특성, 의복산업의 발달, 의복산업

의 현황과 전망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MOE, 1992a; MOE, 1992b)에서는 중학교에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방법에서만 각 영역의 지도에 있어서 산업체 견학 등의 학습이 제안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가사 과목에 수편물, 한국의복, 서양의복영역에 각각 기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고 가정생활 및 관련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와 같이, 방법 즉, 교수·학습에서는 각 영역의 지도에서 관련되는 산업과 연계 지어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제작의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과 일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로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가사에서는 '수편물', '한국의복', '서양의복' 영역이 제시되었는데, 3영역 모두 기본적인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가정생활 및 관련 산업에 적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법에서 현장 견학, 자원 인사 등을 활용하여 관련 산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MOE, 1997)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단지 심화선택과목인 고등학교 가정과학에 편물과 자수로 "의생활 관련 산업과 직업 세계를 이해한다"는 내용만 제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공동교육과정이 아닌 선택과목에 제시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가정과학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의생활산업'에 관한 내용을 학습할 수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2007 개정(MEHRD, 2007a; MEHRD, 2007b)에서는 고등학교 가정과학에 "의복과 패션 산업 관련 직업 세계의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한다"로 되어 있다. '의생활산업'이 아닌 의복과 패션 산업에 관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의복만들기와 코디네이션에서 '의복과 패션'영역 관련 직업으로 "의복과 패션 산업 관련 직업 세계의 탐색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능력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한다"로 제시되고 있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이라기보다는 진로교육 측면에서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9 개정(MEST, 2011)에서는 선택교육과정 심화과목인 가정과학은 관련 전공 분야인 의생활, 가족생활, 소비생활, 식생활, 주생활에 필요한 가정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의생활은 '패션과 의생활'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사실상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부합되는 의생활교육을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목이 가정과학이 더 많은 학교현장에서 채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패션과 의생활'영역에는 패션과 첨단 기술, 패션 디자인의 실제, 패션 관련 직업과 진로가 제시되었다.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는 '패션과 의생활'영역에서 '텍스타일 및 패션 상품의 디자인, 패션 소재 및 패션 상품의 개발과 생산, 패션 상품의 제조, 패션 상품의 소비 및 유통에 관련된 첨단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교수·학습방법에서도 "섬유, 직물, 의류의 개발 생산과 소비·유

통에 관련된 첨단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를 탐색하여 패션 디자인에 적용해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패션분야의 직업 세계를 탐색하여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로 제시되고 있어서 의생활에 대한 최신 정보 습득과 기존의 산업과 직업을 연계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MOE, 2015)에서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고등학교 진로선택과목인 가정과학 ‘자원관리와 생활문화’영역에서만 의류마케팅의 실제와 의생활 관련 직업·진로 개발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의류마케팅의 개념과 동향을 이해하고 생산자, 소비자, 환경을 고려한 의류마케팅 방안을 탐색하여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로선택과목으로서 의생활 관련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고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길러 체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MOE, 2022)에서는 고등학교 일반선택과목인 기술·가정의 내용체계에서 생활문화와 디지털 환경을 살펴보면, “미래지향적 생활산업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이 의식주 생활문화에 대한 공감적 관찰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의식주 생활문화를 이끌도록 하며, 다양한 진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한다”의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의생활교육에서 미래지향적 생활산업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취기준에서는 “의생활에 적용되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능형 의류의 유형들을 탐색한다. 또한, 메타 패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제작한 디지털 패션 산업을 뜻하며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로 개선될 방안을 제안하도록 한다”로 되어있어 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에서 디지털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도 새로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현장에 실현되는 시기에는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생활산업과 디지털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에서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은 초기 교육과정에서 주로 수공예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었다가, 미래 교육환경에 부합하는 디지털 패션 산업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의 시점에서 학교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체계적인 의생활교육과정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교육은 발달단계에 따라 연계성을 지니고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은 대학교육 및 취업 등의 진로교육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제시된 교육내용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

행되었는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 교육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과정 개정 시기에 따른 의생활교육내용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의생활산업’ 관련 교육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의생활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의생활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1955년 제1차 실업·가정 교육과정에선부터 현재 학교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을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 method)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고등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의생활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내용 영역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주로 ‘의생활’영역으로 제시되다가 7차 교육과정 이후에는 ‘가정생활’ 등 통합된 영역에 포함되어 제시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의생활교육내용은 옷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교육내용이 주로 제시되었다.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Ju et al., 2006; Kim et al., 2003; Lee & Jean, 1994; Pak & Lee, 2003)에서도 중·고등학교의 의생활교육은 주로 ‘바느질’과 관련된 기능 중심의 교육으로만 인식하고 있어서 의생활교육내용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환경에 따라 옷을 만들어 입는 내용은 축소되었고, 옷을 입고 소비하고 관리하는 내용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환경변화에 의생활교육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이고 기능중심의 내용에서 디지털 기반과 관련된 내용, 지속가능한 내용과 더불어 ‘의생활산업’에 대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로봇이 대체되는 사회로의 변화시점에서 기능만 중시하는 식의 교육내용 전개에서 벗어나 그 속에서 담겨있는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교육내용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소비교육으로서의 패션 마케팅 역량 또한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의생활산업’ 산업 관련 내용은 연계성을 지니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초기 교육과정에서는 주로 수공예와 관련되어 제시되었으며, 진로교육내용인 직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산업’ 관련 내용으로 생활산업과 디지털 패션 산업으로 구성되고 있어서 앞으로 교육현장에 실현되는 교과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2022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에서 ‘의생활산업’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으로 인해 메타버스, 언택트,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패션 산업시장에서도 기술적 혁신을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구 기후 환경변화의 위기감으로 인해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트렌드의 급부상과 함께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의류 제품 생산에서부터 판매 폐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현장에서 의생활교육내용 또한 빠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지속가능성과 관련지어볼 때, '의생활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가치교육을 포함한 교육적 대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현실에서 보다 '의생활산업'에 대한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의생활교육에 대한 인식제고 뿐만 아니라 의생활교육의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실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2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References

- Berelson, B. (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s research*. Glencoe, IL: Free Press.
- Cha, S. B. (2012). Methodological Review of content analysis applied to the tourism studies. *Korea Academic Society of Hotel Administration*, 21(6), 215-229.
- Choi, K. E., Jung, M. K., Lee, Y. J., Jung, J. Y., Cho, Y. J., & Jin, H. J. (2012). *Theory and practice of elementary clothing education*. Seoul: Yangseowon.
- Cho, Y. J. (2016). 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effects of clothing & textiles program towards ESD for pre-service elementary teacher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9(4), 43-62.
- Chung, M. K. (2004). The strategy for the environmental education through the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 in a viewpoint of the clothing & textiles resourc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6(3), 131-146.
- Chung, M. K. (2012).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steam education in the clothing & textiles units of practical ar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5(3), 217-241.
- Chung, M. K. (2016). A study on the clothing & textiles change and elementary clothing & textiles education in the post digital age.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9(4), 129-148.
- Harris, H. (2001). Content analysis of secondary data - a study of courage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Journal of Business Ethics*, 34(3-4), 191-208.
- Holsti, O. R. (1969).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MA: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Kolbe, R. H., & Burnett, M. S. (1991). Content-analysis research - an examination of applications with directives for improving researc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2), 243-250.
- Jang, B. O., & Lee, Y. J. (2009). The effects of clothing education program during discretionary activity class on the clothing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Korea*, 15(1), 87-108. doi:10.17055/JPAER.2009.15.1.87
- Jin, H. J. (2013). Research trends on the clothing behaviors of school-aged children - Focus on research articles published between 1991 and 2012. *The Society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Korea*, 19(3), 85-102. doi:10.17055/jpaer.2013.19.3.85
- Ju, I. S., Lee, H. J., & Han, Y. S. (2006). The recognition of students on appropriateness of clothing & textiles as educational contents in practical arts or technical education. Home economics in the 7th curriculum of Korea.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8(3), 81-95.
- Kang, J. Y., & Lee, Y. J. (2018). Analysis of the "clothing life" section of the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textbook in the middle school curriculum revised in 2015.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4), 15-35. doi:10.19031/jkhea.2018.12.30.4.15
- Kim, M. K. (202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upcycling textile design and digital 3d utilization for the sustainable fashion industry. *Fashion business*, 27(5), 108-120. doi:10.12940/jfb.2023.27.5.108
- Kim, G. A., Jung, L. H., & Shin, B. Y. (2003). Recognition on the 7th technology? home economics curriculum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2), 101-120.
-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03). *국가과학기술술표준분류체계표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Standard Classification System Table]*.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402000000&bid=0003&list_no=39423&act=view
- Krippendorff, K. (2018).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Sage.
- Lee, E. H. (2019).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4), 149-161. doi:10.19031/jkhea.2019.12.31.4.149
- Lee, E. H. (2022). Exploring the direction of the clothing life education curriculum according to changes in the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4(4), 93-111. doi:10.19031/jkhea.2022.12.34.4.93
- Lee, D. A., & Kim, C. H. (2022). A case studies on the sustainable fashion trend and design as ESG practice in the post-corona new norm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4(3), 169-184. doi:10.30751/kfcd.2022.24.3.169
- Lee, E. H., & Jean, K. R. (1994).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and needs in the clothing education curriculum from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6(1), 43-60.
- Lee, Y. J. (2013). Contents analysis of clothing & textile education in Vietnam, Thailand, and Malaysia.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18(2), 195-220. doi:10.17055/JPAER.2012.18.2.195
- Ministry of Education. (1955a). *중학교 교과과정 [Middle School Curriculum]*. 147-173.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_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55b).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과정 [High School and Teachers' School Curriculum]*. 266-295.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63a). *중학교 교육과정 [Middle School Curriculum]*. 133-138.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63b).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Ordinance No. 121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High School Curriculum]*. 113-117.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73). *문교부령 제325호. 중학교 교육과정 [Ordinance No. 325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Middle School Curriculum]*. 126-135. 149-153.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74).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Humanities High School Curriculum]*. 82-89. Retrieved March 26,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81a). *중학교 교육과정 [Middle School Curriculum]*. 79-83. 89-91.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81b). *고등학교 교육과정 [High School Curriculum]*. 119-122. 129-131.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87). *중학교 교육과정 [Middle School Curriculum]*. 105-108. 119-120.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 [High School Curriculum]*. 179-182. 189-191.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91). *중학교 가사 3 [Middle School Housework Subject 3]*. Seoul: Mirae N Co.
- Ministry of Education. (1992a). *중학교 교육과정 [Middle School Curriculum]*. 84-89.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92b). *고등학교 교육과정(I) [High School Curriculum(I)]*. 161-165. 177-179. Retrieved April 22,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1997).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25-37. 67-74. Retrieved July 29,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a). *중학교 교육과정 6, 기술·가정 [Middle School Curriculum 6, Technology·Home Economics]*. 1-11. Retrieved July 29,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b). *고등학교 교육과정(I) 6-1, 기술·가정 [High School Curriculum(I) 6-1, Technology·Home Economics]*. 323-331. 349-357. Retrieved July 29,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Curriculum]*. 1-97. Retrieved July 29,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1-44. 77-83. Retrieved July 29, 2022,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2022).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교육과정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Informatics Curriculum]*. 1-62. 77-88. 115-139. Retrieved January 27, 2023, from <https://ncic.re.kr/mobile.dwn.ogf.inventoryList.do>
- Ministry of Education (2021, June 7). *미래 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 마련 [Launch of the future education system conversion promotion group,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ystem, facility, and digital response system for a major transformation in future education]*.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22). *교육부 공고 제2022-414호 2022 개정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행정예고 [Ministry of Education public announcement No. 2022-414. 2022 revised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dministrative preliminary notice]*. Sejong: Author.
- Moon, H. K., & Lee, Y. Y. (2009). Research trends i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1(2), 109-125.
- Pak, I. R., & Lee, E. H. (2002). A study on the sequence of contents in clothing and textile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4(1), 39-54.
- Pak, I. R., & Lee, E. H. (2003). A study on research of necessity and practice of contents of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5(3), 89-103.
- Park, J. Y., & Shin, H. N. (2022). *지구를 살리는 옷장 [Closet to save the earth]*. Paju: Changbi.
- Ree, S. W., & Koh, Y. M. (2017). The aims of education in the era of AI. *Journal for History of Mathematics*, 30(6), 341-351. doi: 10.14477/jhm.2017.30.6.341
- Seong, S. S. (2017). Historical development of industrial revolutions and the place of so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Studies*, 17(2), 5-40.
- Ryu, S. H. (2014). Research trends on clothing and textiles education in practical ar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0(4), 1-17.
- Ryu, S. O., Min, G. J., Woo, K. J., Ji, Y. S., Choi, K. S., Choi, S. S., Hong, M. J., & Hong, S. Y. (1984). *고등학교 가정 [High School Home Economics Subject]*. Seoul: Gyohagsa.
- Ryu, S. O., Hong, S. Y., Lee, S. H., Song, M. L., Woo, K. J., Back, Y. J., & Choi, S. S. (1990). *고등학교 가사 [High School Housework Subject]*. Seoul: Gyohagsa.
- Wan, Y. J., & Chung, J. Y. (2023). Development of digital 3d textile desig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extile embroidery techniques by Maria Grazia Chiuri.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25(2), 123-134. doi:10.30751/kfcd.2023.25.2.123
- Yang, J. H. (2016). A Study on the Direction of Clothing & Textile Units of Practical Arts Education based on Lifestyle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9(1). 197-211.

(Received January 10, 2024; 1st Revised January 16, 2024; 2nd Revised February 6, 2024; Accepted February 22, 2024)